향교 · 서원 교육 · 제향 문화 조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년 3월까지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획전시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향교와 서원의 교육과 제향을 주제로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획전시를 2025년 3월 30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제향의 문화를 조명하며, 후대의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재조명하고자 유물과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다.

전시의 주인공인 '향교'와 '서원'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선비들이 인격을 수양하고 사회적 책무를 고민했던 중심지였다. 특히 제향은 성현과 선현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그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의 표현이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전통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교육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는 총 5개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에서는 유교문화가 우리나라에 확산 정착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2부 〈배움의 전당〉에서는 향교와 서원의 역할과 설립과정을 통해 향촌사회에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획전시 포스터

이어지는 △3부 〈선비를 기르는 교육〉에서는 관리 양성 기관으로써 향교와 과거시험에서 벗어나 성리학 연구에 전념한 서원의 교육 과정을 알아본다. △4부 〈어진이를 드높이는 제향〉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현을 모시는 향교와 지역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선현을 모시는 서원의 제향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 △5부〈배움의 실천〉에서는 유교 전통이 뿌리내린 군산지역의 충효 실천과 의병 활동을 소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으며, 우리가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이 근대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지와 헌책의 만남' 기획전시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17~22일 종이문화연구소 이진화 대표 개인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7~22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2024년 예술인지원사업의 마지막 기획전시 '책 속의 새로운 길: 한지와 헌책의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문화연구소 이진화 대표의 개인전으로 헌책과 한지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탐구한 △간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임스 딘 등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과, △자연 속의 안식처 △자작나무의 노래 △문학의 꽃 등 자연물과 접목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버려지거나 잊힌 헌책들이 한지와 만나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거와 현재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2024년도 예술인지원사업으로 7건의 기획전시를 개최하며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폐도서가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담아낸 올해 마지막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 인문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 지원사업 위해 무주 협의체 발족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소장 김종혁)가 인문도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 내 기관 및 단체들과 손잡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인문 주간 행사와 각종 인문학 체험, 강좌 등을 통해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수행되며, 전북대 인문학연구소는 국비 4억2천만 원, 무주군 대응자금 7천5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9천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무주군 상상반디숲 다목적홀에서 열린 협약식 및 발족식에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와 무주군 도서관팀을 비롯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노인대학), 무주군 가족센터,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무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무주문화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 청소년수련관,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가 참여했다. 무주교육지원청도 협의체로 함께 해 인문도시지원사업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 제반 행사 기획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혁 소장은 "이번 공동 협약으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기반이 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앞으로 협의체 간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개발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성과전시회 18일 개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성규)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함께 혁신, 함께 성장 '새로운 전북의 미래, 더 특별한 콘텐츠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북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취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북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한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다양한 창작물이 전시되며, 시장진출에 성공한 주요 콘텐츠 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콘텐츠 체험 부스 △우수기업 성과발표 △비즈니스 상담회 △2025 사업설명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 119만명을 보유한 과학·공학 콘텐츠 기업 긱블(Geekble)의 박찬후 대표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 성과전시회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웹툰페어' 성료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 이하 진흥원)이 지난 13일 전주대학교에서 임종명 전북도의원, 정화영 전북도청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북웹툰페어(이하 웹툰페어)'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자리로, 웹툰 전시부스 관람, 피칭데이, 오픈특강(주동근 작가) 등 다양한 웹툰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웹툰 예비작가 12명을 발굴하여, 현직 웹툰작가와 1:1 밀착 멘토링 등을 통해 작가 데뷔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웹툰 36편을 제작하여 이번 웹툰페어에서 선보였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사와 비즈매칭 상담 5건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제1회 전북웹툰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해 군산 소화권번, 익산 보석문화거리 등 전북의 지역, 문화 등을 소재로 한 웹툰 우수작 4편을 선정하여 지역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진안군립합창단(단장 김병하 진안부군수, 지휘 박영근)의 제33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2일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군민 200여 명이 마이홀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선구자', '나 하나 꽃피어' 등 가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하고 트로트메들리도 선보여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안군립합창단은 지난 1996년에 창단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기획공연, 홍삼축제 등 행사에도 출연하여 군립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테너 신상근, 국악팀 예음컴퍼니, 첼로 소중연이 특별 출연하여 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진안군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도 꾸며 큰 울림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